

#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의 衣裳에 나타난 文樣研究\*

박 옥 련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의류학과

## A Study on Dress Pattern in SU WOL KWAN EUM DO of Koryo Dynasty

Ok-Ryon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Sung University

(1991. 12. 19 접수)

### Abstract

Studying the dress style o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SU WOL KWAN EUM DO (Drawings on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who is watching the Moon reflected in the still water), it is composed of a splendid, jewel crown with five colors, a light and flimsy, non-colored veil with many kinds of gold-plated patterns.

This gold-plated carapace figures on a scarlet ground are drawn on the veil and the oval-type flower figures mixed with a scarlet lotus blossom ard arranged.

An arabesque pattern of BOSANGHWA (an imaginary, Buddhistic flower figure) is mainly used for both line decorations and necklace. Like this, various kinds and types of figures are in harmony in spite of many changes in figure design.

The SU WOL KWAN EUM DO in Koryo dynasty is full of colorful, subtle, harmonious figures which are unique style, which cannot be found in japan, China, and so on.

In other words, most of most of dress patterns which are shown in SU WOL KWAN EUM DO are China ink paintings with mountains and waters as its setting.

In case of color painting, figure designs are seldom used. The dress pattern in SU WOL KWAN EUM DO of koryo dynasty is characteristic of its variety and magnificent colors.

### 緒 論

高麗時代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호국적 불교와 더불어 현세이익적 성격을 지닌 불교의식이 성행되었다. 궁정

을 중심으로 그려진 佛敎繪畵는 阿彌陀如來圖, 觀經變相圖, 水月觀音圖 등으로 나뉘며, 그 중 수월관음도는 현재 24여점 現存하며 거의 日本에 소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水月觀音圖는 모든 危難, 苦惱로부터 해탈의 역할을 하는 관음신앙이 기초가 되며, 이러한 思想을 바탕으로 한 수월관음도에 표현된 衣裳文樣은 그 時代의 문화적 독창성과 時代의 思考를 엿보게 한다.

高麗時代 궁중의상 및 일반 서민의상에는 거의 문양이

\*이 논문은 1991년 교육부 지방대학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표현되지 않는데 비해, 佛畫에 나타난 衣裳에는 다채롭게 많은 문양이 그려져 있다. 특히 고려시대 水月觀音圖는 同時代 他國의 불화로 日本의 白衣觀音圖나 中國의 간단한 채색만으로 된 佛畫형식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된 문양들로 구성되어 독특하다. 이 점에 주목하여 水月觀音圖에 나타난 衣裳文樣을 연구·분석해 봄으로써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에 나타난 文樣의 독창성과 전통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佛畫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불교문양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林良一氏의 佛教文樣에 대한 연구<sup>1)</sup>가 있고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인 高麗佛畫<sup>2)</sup>, 鄭于澤<sup>3)</sup>, 朴玉連<sup>4)</sup>, 平田寬<sup>5)</sup>氏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水月觀音圖의 衣裳에 나타난 文樣을 部位別로 체계있게 연구한 바는 적다.

高麗時代 수월관음도의 衣裳 즉 寶冠, 베일, 裳, 領巾 등에 나타난 文樣을 소장별로 비교·분석해 時代의 특색 및 형태적 표현과 內在된 寓意성을 탐색코자 한다.

## II. 本 論

### 1. 高麗時代의 觀音信仰

고려불화 중에서 가장 많은 觀音菩薩像은 대부분 楊柳觀音圖로 일명 水月觀音圖형식이다. 「大覺國師」나 「李相國集」에 水月觀音을 칭송하는 기록<sup>6)</sup>을 보아 水月觀音에 대한 信仰을 엿볼 수 있다. 「佐和降研」의 “觀世音菩薩의 展開”에 서술된 관음의 역할 및 발전상황<sup>7)</sup>을 보면, 관음의 역할은 모든 危難, 苦惱로부터 解脫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관음신앙의 출발은 서기 전후 異敎의인 印度敎의 신앙에서 現世利益을 위한 効能을 갖고자 비롯된 것이라 한다. 이러한 관음신앙이 佛教에 들어와 佛教의 일반적인 신앙이 되었다. 「林進」氏도 “高麗時代의 水月觀音圖について”<sup>8)</sup>에서 觀音信仰은 古來로부터 전래되어 土地의 民間信仰과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불교수용 이전에 있었던 原始信仰으로 神靈, 혹은 祖靈숭배의 信仰은 檀君神話에 나타난 天神崇拜나 呪術을 통한 精靈崇拜(animism), 自然崇拜(naturalism) 등을 통해서도 固有한 原始信仰을 說明할 수 있다<sup>9)</sup>.

「三品彰英」氏는 「朝鮮에 있어 불교와 민족신앙의 연구」에서 祖先崇拜의 발전과정에 佛教가 수용되며, 거기에 道敎·유교가 전해졌다<sup>10)</sup>고 한다. 즉 朝鮮佛教와 民族信仰의 結合을 穀靈儀禮의 佛教化로도 說明된다. 高

句麗의 固有女神인 穀母神이 觀音과習된 것에서도 볼 수 있으며, 固有女神의 居所가 水邊의 聖所로 後에 觀音의 靈場이 되었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本來 觀音의 住所는 「妙法蓮華經」<sup>11)</sup>엔 補陀落山으로, 「三國遺事」에는 義相法師가 觀音菩薩의 眞身이 海邊의 굴속에 산다고 洛山이라고<sup>12)</sup>했다. 佛教의 觀音은 民間信仰의 穀母神과 합해짐으로 觀音이 女神을 대신해 豐穰과 多產의 보살로도 숭배되었다. 高麗의 팔관회, 연등회 행사에도 穀靈儀禮의 불교화를 볼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는 외부의 侵入과 混亂이 계속되어 護符, 護身佛의 信仰이 民衆의 現世利益을 위해 성행되고, 除災招福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 高麗宮廷을 中心으로 관음사상이 尊崇되어 水月觀音畫가 流行되었다고 생각된다.

### 2. 水月觀音道의 製作

現在 보존된 高麗佛畫는 幀畫形式으로 80여 작품이며, 그 중 관음보살의 獨尊圖인 水月觀音圖가 24여 작품이 알려져 있고 거의 日本에 소장된 실정이다. 「朴玉連」의 水月觀音圖의 製作例<sup>13)</sup>(참고도표)를 참고하여 대표적인 작품의 제작 상황을 살펴보면, 日本 佐賀縣 鏡神社의 水月觀音圖(圖 1)는 絹本着色되어 있고, 크기는 縱 419.5 cm, 橫 254.2 cm로 가장 巨大하며, 관음의 방향은 대개가 右向半跏로 表現된데 비해, 左向半跏로 된 것이 특징이다. 明德二年(1391年), 僧 良賢에 의해 寄進된 것으로, 伊能忠敬의 測量日記의 鏡神社條에 製作年度와 畫員이 기록된 것을 「平田寬」<sup>14)</sup>氏는 밝히고 있다. 本圖는 至大三年(1310年) 忠宣王 復位二年, 王淑妃가 發願해 畫院소속의 畫員인 內班從事 金祐文과 翰畫直待詔 李桂林順, 宋連, 崔昇등의 四人이 합동 제작했다. 崇佛政策을 폈던 고려궁정에서 궁정화를 그리는 전문직으로 하여금 水月觀音圖가 그려졌던 것이다.

徐九方筆 水月觀音圖(圖 2)는 日本의 京都 泉屋博古館소장인 것으로 至治三年(1323年)에 제작되어, 경신사 소장 수월관음도보다 10년 가량 후의 작품으로 거의 제작시기가 비슷하다. 크기는 縱 165.5 m×橫 101.5 cm이며 絹本着色되어 있다. 특히 內班從事 서구방이란 제작자와 제작년도가 명확히 기록되어<sup>15)</sup>있다. 發願者는 六靜이며 왕실과 관련된 스님으로 보이며, 화원의 직책도 경신사소장품을 그린 畫院의 畫師로 생각된다.

日本 京都市 大德寺에 소장된 수월관음도는 세종류가 있고, 경신사 소장품 다음으로 큰 작품인 大德寺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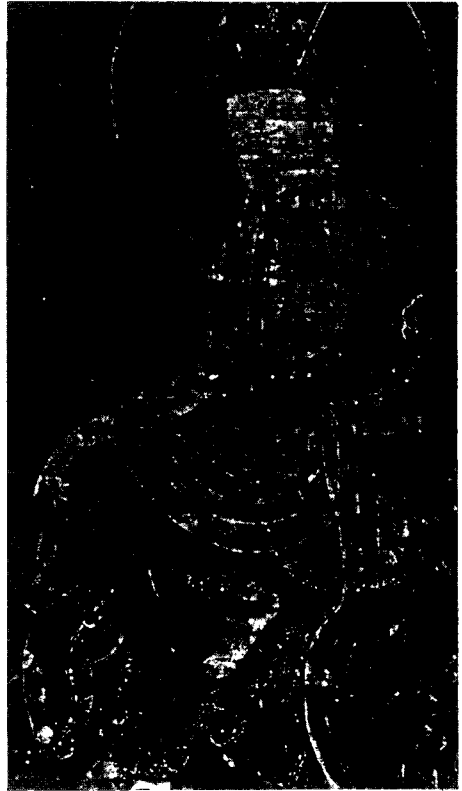


〔圖 1〕 鏡神社所藏 水月觀音圖(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I)의 크기는 縱 227.9m×橫 125.8m이며, 그 밖에 大德寺소장품(II)은 縱 154.3m×橫 84.7m의 크기이고, 大德寺소장품(III)은 縱 129.6cm×橫 63.8cm의 크기다, 대부분의 수월관음도가 제작년도와 제작자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궁정을 중심으로 그려진 작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後章에서 수월관음도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와 형태의 유사성에서 다소 연구하고자 한다. 그밖의 24여점의 수월관음도의 소장처나 크기, 문양의 종류 및 형태의 특징은 諸作例를 참고도표<sup>16)</sup>로 정리했다.

### 3. 水月觀音圖의 衣裳文樣

수월관음도의 의상을 보면, 五彩로 장엄하게 장식된 寶冠으로부터 全身을 덮어내린 經羅의 無色の 베일엔 여러가지 종류의 문양이 全泥로 표현되어 있다. 裳엔 朱色



〔圖 2〕 徐九方筆 水月觀音圖(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高麗佛畫 圖40)

의 바탕에 金泥의 龜甲文을 地文으로 그리고, 그 위에 紅蓮化를 조합한 타원형의 蓮化文을 배치했다. 裳의 線裝飾이나 領巾에는 寶相華唐草文이 주로 장식되어 있으며, 部位에 따라 蓮唐草文도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善財童子의 衣文에는 頭上에 菊化, 蓮花複合文, 下衣엔 二重의 圓文等이 表現된 경신사소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문양들이 변화가운데 통일된 조화를 이룬다. 이와같이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에는 관음의 얼굴, 목, 가슴, 팔등의 노출된 部分을 제외하고, 衣服으로 가려진 表面엔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채와 섬세하고 조화로운 文樣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는 日本<sup>17)</sup>, 中國<sup>18)</sup>의 水月觀音圖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다. 즉 水月觀音圖의 대부분이 山水를 배경으로한 水墨畫로서 白衣觀音圖이며, 彩色畫의 경우도 文樣이 거의 묘사되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수월관음도로도 경신사소장품<sup>19)</sup>에 나타난 文樣을 보면, 寶冠의 장식은 化佛의 배경엔 菊花文이

묘사되어 있다. 裳에는 龜甲文과 蓮花文을 조화있게 배치하며, 腹部的 帶엔 다양한 색과 文樣이 화려하고 정밀하게 표현된다. 線의 裝飾과 領巾에 장식된 보상화나 연화당초문은 佛敎의 意味를 더해 준다.

서구방이 그린 수월관음도(圖 2)<sup>20)</sup>에는, 寶冠엔 菊花文을 表現하고 化佛의 衣文은 金泥의 둥근 圓文을 그렸다. 베일엔 麻葉文의 地文에다 渦卷唐草文을 主文으로 묘사해, 수월관음도의 베일에는 문양의 조합이 소장별로 相異하다. 天衣의 裳에는 龜甲文과 紅蓮花文이 경신 사소장품과 비슷한 형식이며, 腹帶의 上部엔 줄기가 말려 있는 花文형식이며, 下部엔 菊花文이 平面的으로 배열되어 있다.

大德寺소장품(Ⅰ)<sup>21)</sup>의 寶冠엔 無文이며, 化佛의 赤衣에는 圓文이 보인다. 베일 [圖 3]에는 麻葉文을 바탕으로 하며 그위에 渦卷唐草文이 배열되 서구방필 수월관음도와 같은 형식이다. 裳에는 굵은 윤곽선으로 묘사된 龜甲文의 內部에 菊花文이 들어 있고, 그위에 타원형을 이룬 紅蓮花文의 배열은 앞의 수월관음도와 같은 형식이다. 線裝飾에도 寶相華 唐草文이 黃色으로 탐스럽게 표현된다. 그 밖의 八部衆과 侍從들의 衣服에도 菊花文, 圓文, 唐草文, 雲文등이 표현되며, 蓮葉에 서있는 善財童子의 上衣에는 소용돌이 형태의 圓文과 목·어깨의 휘날리는 끈에는 水波의 갈퀴문이 보인다. 기타 수월관음



〔圖 3〕大德寺所藏 水月觀音圖(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도의 소장별 문양 표현의 差異는 참고도포로 나타나며, 衣裳의 部位別 문양의 형태는 소장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4. 衣裳 部位別 文樣 분석

##### 1) 頭의 裝飾

머리부분엔 寶冠과 花佛의 赤衣에 주로 문양이 묘사된다. 製作例의 도표에서 寶冠엔 대부분 菊花文이 표현되나, 大德寺소장품(Ⅰ)은 국화문이 없고 唐草줄기만 표현된다. 東光寺소장의 立像과 淺草寺소장품과 같은 특이한 수월관음도 형식에 菊花文은 보이지 않는다. 경신 사소장 水月觀音圖의 寶冠[圖 4]에 나타난 菊花唐草文



〔圖 4〕鏡神社所藏 水月觀音圖의 寶冠(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은 赤色 바탕에 金泥로 치밀하게 그려졌고, 子房을 中心으로 散開形 花卉이 방사선상의 配列로 놓여 平面的 道안을 이룬다. 花卉 주위에는 줄기가 감겨 있어 唐草文형식을 이루며 다른 水月觀音圖와는 相異하다. 대부분의 水月觀音圖의 寶冠의 菊花文은 花卉를 방사선으로 배열하며, 주위엔 줄기를 감는 대신에 花卉를 圓形으로 배열해 唐草形式을 취하지 않는다. 泉屋博古館소장품(圖 5)과 大德寺소장(Ⅱ)품은(圖 6)의 花卉이 삼각형태로 집합되며 둘레도 같은 형태로 장식되었다. 長樂寺소장품은 花卉의 배열이 영성하며, 大德寺소장품(Ⅰ)은 寶冠에 전혀 국화문이 보이지 않고, 용수철처럼 말린 唐草줄기만 表現된 것이 異色的이다.

寶冠외에도 베일이나 衣服의 다른 부분에 국화송이를 여러 송이 조합한 菊花圓文의 형태로 많이 표현된다. 菊



〔圖 5〕 泉屋博古館所藏 水月觀音圖(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圖 6〕 大德寺所藏 水月觀音圖(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花文은 고려도자·동경등에도 많이 표현되며, 蓮花文과 함께 고려시대 절정을 이룬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菊花文은 老壯思想에선 神仙의 草花로 神格化되었고, 생물학적으로는 霜雪속에 피어 절개와 속세를 벗어난 隱士에 비유하며, 또 不老不死의 靈草<sup>24)</sup> 라는 사상이 고려시대 중반되어서, 長生 및 불교적 의미와 함께 고려의 시대적 상황에 흡수되어 애호된 문양이다.

2) 베일의 裝飾

水月觀音圖의 관음에 나타난 베일은 얇고, 무색의 투명한 紗羅에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 섬세하고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베일을 쓰고 있음은 관음보살이 여성임을 말한다<sup>25)</sup>. 보살은 여성의 이상적인 存在로서 美의 절정체를 이루며, 최대로 장식한 寶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갖가지 瓔珠로 장식했다. 本來 水月觀音圖는 「觀音菩薩說懺華應現德願陀羅尼」에도 觀音菩薩은 당연히 회고 깨닫하며 가는 털옷을 몸에 걸치고 白衣로 연꽃에 앉으신다는 기록<sup>26)</sup>을 보아, 회고 가는 털옷이 高麗時代는 흰 무늬있는 얇은 비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高麗人이 관음을 水月 또는 白衣觀音으로 여겨, 회고 투명한 무늬있는 베일로 표현했다고 본다. 특히 水月觀音圖의 흰 베일에 나타난 文樣의 조합은 다른 部位보다 더욱 그 종류와 표현이 다양하고 화려하다. 文樣의 類型을 表材에 따라 분류하면 두가지 이상의 문양이 主文과 副文으로서 조합을 이룬다.

첫째, 雲文과 鳳凰文이 조합된 경우...長樂寺소장<sup>27)</sup>, 大德寺소장(II)<sup>28)</sup> 鏡神社소장<sup>29)</sup>

둘째, 雲文과 鳳凰文과 麻葉文이 조합된 경우...奈良縣立美術館소장<sup>30)</sup>, 淺草寺소장<sup>31)</sup>

셋째, 雲文과 麻葉文이 조합된 경우...藤井齊成會有隣館소장<sup>32)</sup>

넷째, 麻葉文과 渦卷唐草文이 조합된 경우...大德寺 소장(I)<sup>33)</sup> 談山神社소장<sup>34)</sup>, 泉屋博古館소장<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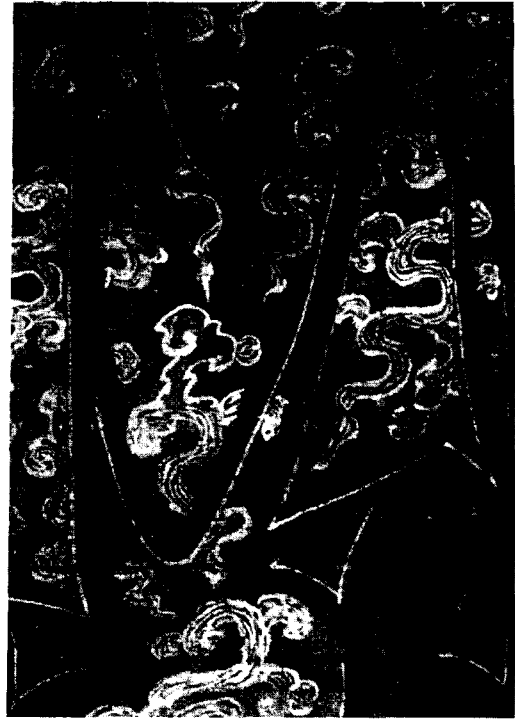
다섯째, 麻葉文과 菊花圖文이 조합된 경우...養壽寺 소장<sup>36)</sup>, 叡福寺소장<sup>37)</sup>

여섯째, 麻葉文과 蓮花·菊花複合圖文이 조합된 경우...太山寺 소장<sup>39)</sup> 등으로 분류된다.

베일에 雲文과 봉황문이 새겨진 형태를 분석하면, 경신사소장품의 베일(圖 7)의 地文으로 사용된 雲文은 如意形 또는 寶相華형태의 主雲頭에 五個정도의 花蓋形 小雲頭를 붙여 풍부한 장식을 하고, 雲尾의 형태는 울챙이



【圖 7】鏡神社所藏 水月觀音圖(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圖 8】日本銀行 소장 阿彌陀如來圖(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꼬리와 같은 모습이다. 雲文은 二重線으로 묘사하고 內部에 細線을 넣어 섬세하다.

雲은 古代부터 神仙과 관련되어 왔고<sup>39)</sup>, 자연과 밀접해 陰陽을 포함한 山川의 氣를 모은 것으로 豐年과 幸運을 상징했다. 雲文은 불교의 용성으로 보상화, 靈芝, 연화등의 형태와 같은 花蓋形 雲頭와 길다란 雲尾가 표현된 양상이 많이 보인다.

경신사소장품과 유사한 大德寺소장품(II)의 雲文은 雲頭나 花蓋의 곡선이 완만한 형태로 남고, 內部의 細線도 없으며, 雲尾도 잘록해 전체 형태는 비슷하나, 세부 묘사가 치밀하지 못하고 다소 자연스런 형태다.

長樂寺소장품의 雲文(圖 6)은 전체적인 구상은 비슷하나 主雲과 小雲頭가 둥근 渦線形을 이뤄 如意形雲頭의 섬세함과 화려함이 소멸되어 가는 모습이다. 藤井齊成 會有隣館소장품의 S字形 雲文은 小雲頭와 꼬리를 남긴 형태로 생략되어 경신사소장품보다 生成初期로 보거나 後期의 양식화나 간략화의 과정으로도 생각된다.

日本銀行 소장(至元23年, 1286年) 阿彌陀如來圖<sup>40)</sup>(圖

8)의 裳에는 雲頭와 雲尾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자연현상적인 雲의 형태가 雲尾가 生成되는 初期로 본다. 根津美術館 소장(大德10年, 1306年) 阿彌陀如來圖의 大衣<sup>41)</sup>(圖 9)에는 二重의 線으로 如意形 雲頭와 小雲頭가 표현되고, 雲尾도 짧게 나타나 경신사소장품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 가는 모습이다.

베일의 主文인 봉황문은 無色의 투명한 천에 金泥의 細線으로 묘사해, 地文인 雲文과 함께 자연스러운 공간적 조화가 뛰어나다. 봉황은 古來로 부터 神鳥로 여겨져, 어진왕과 天下太平의 道來를 일컫고, 봉황의 部位에 따른 털을 仁, 義, 禮, 德, 信에 비유해 陰陽五行에 따른 神鳥로 간주했다<sup>42)</sup>. 형태는 麟前, 鹿後, 鷄頭, 蛇頸, 燕舍, 龜背, 尾의 형상으로 龍形을 닮았다<sup>43)</sup>고 하며, 키는 6尺이고 五色의 빛과 五音を 낸다. 상상적인 鳳凰文의 文樣化는 三國時代부터 주로 볼 수 있고 통일신라시대 平瓦에는 긴 꼬리의 새의 형태로 표현된다<sup>44)</sup>. 이와 같은 형태가 고려불화나 銅鏡에 많이 묘사된다.

경신사소장 봉황문(圖 7)은 鷄頭に S字形의 蛇의 목을 하고 날개는 펼치고 다발로 된 긴 꼬리를 달고 飛翔하

는 모습이다. 중심꼬리는 길고 양측에 二重線으로 된 잔 꼬리를 붙인 모습이다. 長樂寺소장품(圖 6)의 봉황문은 兩翼을 펼치고 飛翔하는 모습은 경신사소장품과 유사하나 中心의 꼬리가 수북한 잔털로 표현된 점이 相異하다.

大德寺소장품(II)은 봉황의 양쪽 날개가 수직방향으로 飛翔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頭部가 둥근점이 相異하다.

水月觀音圖 이외의 佛畫로 阿彌陀如來圖와 阿彌陀三尊圖에도 경신사소장품과 비슷한 樣狀의 봉황문이 많이 표현된다. 根津美術館 소장 阿彌陀如來圖(圖 9)(1306年)의 大衣엔 봉황문이 本體, 兩翼, 尾 등이 單線으로 묘사되고 봉황의 나는 모습이 미숙하다. 松尾寺 소장 阿彌陀三尊圖<sup>45)</sup>의 大衣에는 펼친 날개와 긴 꼬리의 잔털이 水月觀音圖에서와 비슷하다. 특히 베일의 운문과 봉황문의 조합이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他佛畫에도 많이 표현된다. 飛翔하는 봉황문이 愛用됨은 고려궁정을 中心으로 외부의 침입이 잦았던 시대적 상황의 혼란을 벗어나

기 위한 노력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베일의 雲文과 함께 地文으로 使用된 麻葉文은 中央을 정점으로 방사선 방향으로 마름모꼴이 六角形으로 집합되며, 白線으로 그리며, 전체면적을 메운다. 水月觀音圖의 베일 이외는 他佛畫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根津美術館 소장 阿尾陀如來像<sup>46)</sup>의 臺坐의 표면장식에 사용되어 있다.

베일문의 조합중 네째 마염문과 와권당초문이 조합된 경우엔, 大德寺(I) 소장품(圖 3)의 渦卷唐草圖文의 형태는 波狀曲線의 줄기에 잎을 붙인 S字形態의 主曲線에 C字形의 副曲線이 셋 또는 네개정도 붙어 있고, 波狀곡선의 주변에 菊花葉과 胚芽形態의 葉이 표현되며 전체형태가 圓文을 이룬다.

다섯째, 베일에 麻葉文과 菊花圓文이 조합된 경우, 菊花圓文의 형태를 보면, 大德寺 소장(II)과 養壽寺 소장(圖 10)의 수월관음도의 베일의 菊花圓文은 圓文의 內部



〔圖 9〕 根津美術館 소장 阿彌陀如來圖(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圖 10〕 養壽寺所藏 水月觀音圖의 베일(菊竹淳一, 吉田宏志共著, 高麗佛畫 圖45)

엔 씨방을 中心으로 여덟개내지 아홉개정도의 잎을 붙인 국화송이가 여러송이 조합되어 입체적이기보다 평면적 구성인 印花文형태다. 「林進」氏는 국화송이의 수에 따라 菊花圓文을 7종류로 분류했다<sup>47)</sup>. 菊花文은 寶冠장식에서 언급했듯이 고려시대 도자기, 동경을 비롯 특히 불화에 많이 애용되었음은 도가적, 불교적 의미와 함께 시대적 정신이 많이 내포된 이유에서다. 太山寺 소장품의 베일장식문은(圖 11) 麻葉文을 地文으로 하고, 蓮花와 蓮葉을 上下로 대칭시키며 그 左右에 菊花송이를 細線으

로 그리고, 전체형태를 둥글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 3) 裳의 裝飾

水月觀音圖의 裳에는 거의 龜甲文을 地文으로 하고, 主文으로는 蓮花와 蓮葉을 上下左右 대칭시켜 타원형태로 표현했다.



〔圖 11〕 太山寺所藏 水月觀音圖의 裳(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龜甲文은 古代부터 長生과 神性的의 意味가 내포되어 있다. 「述異記」<sup>48)</sup>에 龜가 千年이 지나면 毛가 생기고 五千年이 되면 神龜, 萬年이 되면 靈龜라 했다. 龜甲文의 內部에도 花文, 字文으로 蓮花文이나 卍字文 등을 넣어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江上綬」은 龜甲文의 連結된 部位가 360도를 이루어 完全함을 의미한다<sup>49)</sup>고 했다. 고려시대 龜甲塚이나 壁畫 등에 點線으로 된 龜甲文의 內部에 蓮花文을 묘사하듯이 水月觀音圖의 裳에는 六角形의 龜甲文의 內部에 平面的으로 菊花葉을 配列했다.

특히 赤紫色 바탕에 金泥의 龜甲文이 色의 대조를 이루어 화려하며, 色感에서도 귀족적인 느낌을 준다. 불화에 귀갑문이 사용되는 Totem 的 신앙이 불교적 의미와 자연스런 습합을 보인다.

水月觀音圖의 裳의 龜甲文은 거의 같은 형태이나, 선의 굵기 및 單線과 二重線의 差異가 있을 뿐이다. 경신사 소장품의 龜甲文(圖 12)은 윤곽선이 두껍고, 內線은 細線으로 한 二重線이며, 內部엔 花葉이 방사선으로 뻗백하고 치밀하게 묘사된다. 太山寺와 泉屋博古館 소장(圖 13)(1323年)大德寺 소장품(II) 등은 경신사 소장품과 비슷하나 養壽寺 소장품은 內外線이 모두 가늘고, 大德寺 소장품(I)은 굵은 윤곽선만으로



〔圖 12〕 鏡神社所藏 水月觀音圖의 裳(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표현된다. 윤곽선의 내부에 菊花葉의 配列도 거의 유사하나 慧虛의 立像<sup>50)</sup>의 水月觀音圖엔 긴 육각형의 龜甲文의 內部에 上下대칭으로 측면형의 蓮花문을 표현해 특징적이다. 其地 佛畫엔 거의 보이지 않으나, 阿彌陀三尊圖의 大衣엔 二重의 龜甲文內에 花文이 방사선으로 組合되어 있으나 中央의 정점에 花葉은 없다.

水月觀音의 裳의 主文인 蓮花文은 佛教美術의 장식문으로 가장 널리 애용되었다. “蓮花는 진흙에서 피어나 오염되지 않고 水中에 살면서 빠지지 않는다”<sup>51)</sup>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淸淨함과 修行의 理想으로 생각되어 佛教의 原理에 부합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sup>52)</sup>나 器物 등에 蓮花文이 여러 형태로 표현되며, 불교의 發展과 더불어 佛像, 佛事, 佛具, 梵鐘 등에 장식된다. 특히 고려불화에는 蓮花座 및 寶冠장식과 衣裳에 나타난다.

水月觀音圖의 裳에 나타난 蓮花文(圖 12, 13)은 형태, 色의 구성이 他佛畫와 異例의이며 특별한 도안이다. 花卉과 花葉이 上下左右로 대칭되어 균형미를 주고, 花葉의 보색대비는 사실적이며 화려하다. 거의 모든 水月觀音圖에서, 赤紫色의 側面形의 蓮弁을 上下로 대칭시키고, 蓮葉은 靑綠色으로 側面形에 잎맥을 가지런히 표현하며, 花葉에서 나온 줄기는 中央에서 감긴 형태다. 전체형태는 타원형의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다소의 연화문의 형태의 差異는 花卉의 조밀도며, 大德寺 소장품(II)은 花卉이 조밀하고 치밀해 탐스럽다. 大德寺 소장품(I)과 泉屋博古館 소



장품〔圖 13〕은 조밀도가 적고 養壽寺소장품은 花卉이 조밀하고 花葉도 통통해 전체 윤곽선이 圓에 가깝고, 叡福寺소장품도 전체 형태가 完全한 圓形이 異例的이다.

水月觀音의 裳에 異例的으로 菊花文이 사용된 求世熱海美術館소장, 聖衆來仰寺소장, 大和文華館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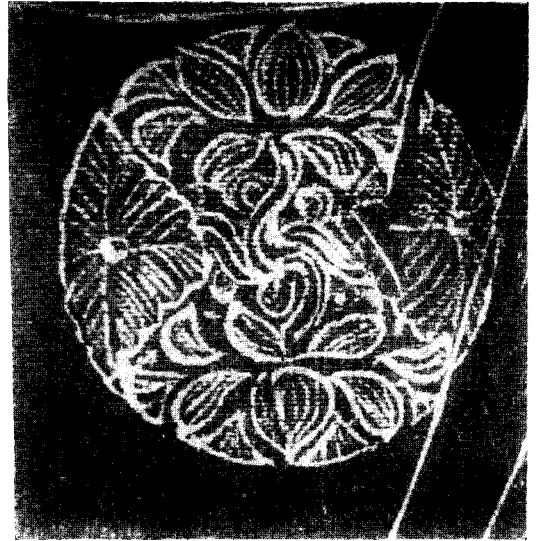
〔圖 13〕 泉屋博古館藏 水月觀音圖의 裳(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等으로 몇 점에 불과하다.

水月觀音圖 이외의 표현된 蓮花文은 玉林院소장 阿彌陀如來像의 赤色 大衣<sup>53)</sup>에 金泥로만 左右에 蓮葉이 대칭되고 下測엔 蓮弁대신 菊花文이 묘사되며, 보색 대비나 타원형태가 없다. 根律美術館소장 阿彌陀三尊圖의 衣文과 聖泥院소장 摩利支天像<sup>54)</sup>의 裳(圖 14)엔 金泥로만 上下左右에 蓮弁과 蓮葉이 대칭으로 구성되나 전체 형태가 圓形이고 보색대비가 없어, 분위기가 자못 다르나 도안의 유사성은 있다.

#### 4) 領巾 및 線裝飾

水月觀音圖의 領巾이나 裳의 線裝飾에 使用된 文樣은 주로 寶相華文이다. 보상화문은 佛敎의 意味를 지



〔圖 14〕 聖澤院藏 摩利支天像의 裳(九州大學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

닌 文樣으로 事物이 도달하는 완전한 善과 美의 형태로 신비의 뜻을 내포한 空想的인 꽃이다<sup>55)</sup>. 寶相이란, 金銅佛像의 壯嚴한 자세를 말하고, 中國 南北朝時代는 佛像의 形容을 말한다.

寶相華의 형태는 西方의 팔메트, 석류 蓮花, 中國의 목단 등이 복합적으로 조합된 合成文樣이다. 보상화문이 三國時代 佛敎전래와 함께 성행되어 高麗時代 불화를 비롯하여 雲文의 雲頭장식과 銅鏡 등에 많이 표현된다.

水月觀音圖에 나타난 寶相華唐草文의 형태는 萬開한 花卉이 목단과 비슷하고, 白色의 바탕에 거자색 계통의 黃色을 써서 唐草文 형식으로 표현되며 층진구도를 이룬다. 鏡神社소장(圖 7, 圖 12)의 당초문은 連續的인 波狀형태의 唐草文이며, 波狀의 山과 谷에 萬開한 花文을 배열하고, 花文의 주위에도 잎을 붙인 줄기가 감고 있다. 領巾에 나타난 寶相華는 花卉이 外測을 向하고 裳의 線裝飾에는 花卉이 內測으로 말린 형태다. 水平으로 감긴 領巾의 一部엔 蓮花唐草文도 보인다. 泉屋博古館소장의 裳엔 寶相華唐草文의 형태가 波狀의 山과 谷의 위치에 外測으로 萬開한 花卉과 內測으로 渦卷形으로 말린 花卉이 교대로 이어진다. 談山神社소장, 大德社소장(I)의 보상화문은 花卉이 渦卷形으로 말린 형태다. 水月觀音圖 외의 阿彌陀三尊

圖<sup>57</sup>)의 裳의 線裝飾에도 寶相花唐草文이 유사하게 표현된다.

水月觀音의 衣裳에 表現된 文樣과 色彩를 살펴 본바, 各部位마다 主文과 副文의 형태로 문양의 조합된 솜씨가 뛰어나며, 色彩感의 對比가 화려하면서도 우아하다.

### III. 結 論

高麗佛畫中 水月觀音圖의 衣裳에 나타난 文樣은, 中國이나 日本의 水月觀音圖에는 거의 文樣의 表現이 없는데 비해, 衣裳 전체가 화려한 色彩와 여러 종류의 문양으로 덮혀 과잉장식적인 느낌이 들 정도이다. 고려시대는 崇佛의 기운이 높았던 시기라 궁정으로부터 발원된 귀족적인 불화로 鏡神社 소장품들이 있으며, 전문화원이 불화를 그려 솜씨도 섬세하고 치밀하다.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에 나타난 時代的 特色과 內在된 寓意性을 보면, 문양의 종류도 다양하고 색채도 화려하며 특히 귀족적인 문양으로 봉황문을 애용해 궁정불화의 특색을 보인다. 飛雲紋이나 봉황의 나는 모습에서 고려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대적 염원도 나타난다. 그 밖에 내포된 의미도 복합적인 성격을 지녀, 불교적 의미를 함축한 素材로 寶相華나 蓮花紋이 사용되며, 도가적 사상을 지닌 菊花紋, 민간신앙속에 애호를 받던 龜甲紋 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조합되어 있다.

水月觀音圖의 衣裳文樣을 보면, 첫째, 관음의 寶冠에는 거의 菊花文 장식이나, 鏡神社 소장품은 菊花唐草文 형식이고 그 밖엔 無文이나 唐草줄기만 표현된 寶冠도 있다.

둘째, 관음의 全身을 덮은 베일은 他部位보다 多様な 종류의 문양의 조합으로 표현이 다채롭다. 主로 雲文, 麻葉文을 地文으로 하고 그 위에 鳳凰文, 渦卷唐草圓文, 菊花圓文, 蓮花·菊花複合圓文 등이 主文으로 조화롭게 조합되어 있다. 雲文은 경신사 소장품을 中心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花蓋頭를 붙인 如意形 雲頭의 장식을 보이며, 雲屋은 길게 꼬리가 있는 飛雲의 모습이 고려시대 범종이나 고려청자에 나타난 雲文과 비슷한 樣狀이다. 다소 형태가 약식화된 雲文은 生成期나 소멸기의 雲의 형태로 제작년도를 짐작케 하며, 자연형상의 雲文 형태를 이룬다. 봉황문도 날개를 펼치고 긴 꼬리를 날리는 모습에서 고려인들의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 나려는 感情

이 엿보인다.

그 밖의 수월관음도의 베일에는 S字形 과상곡선에 菊花葉을 붙인 渦卷唐草圓文이나 국화송이를 조합한 菊花圓文 등으로 나타나 특히 베일에만 문양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세째, 裳에 나타난 귀갑문과 타원형의 蓮花文의 조화는 水月觀音圖와 같은 形式으로 표현됨이 특징이다. 六角形의 龜甲文의 内部에 菊花를 平面的으로 配列한 것을 연속적으로 충전시키고, 그 위에 蓮花文을 배치했다. 蓮花와 蓮葉을 上下左右 대칭으로 구성하고, 赤紅色과 靑錄色의 보색대비를 이루게 하여 균형미와 함께 화려한 느낌을 주며, 자연스런 정취를 느끼게 한다.

네째, 領巾과 線장식은 거의 寶相華唐草文, 蓮唐草文이 S字形 波狀曲線을 이루며 사이마다 萬開한 花卉이 內外側 방향으로 묘사된다.

水月觀音圖의 衣裳의 部位別 文樣은 色彩가 화려하고 귀족적이다. 文樣구성도 도식적이면서 자연스런 형상의 도안배열로 통일과 변화가 적당히 융화되어 세련미를 준다. 한국의 불화에 나타난 독창적인 의상 문양이 민족적인 복식의장에 다소 활용가치가 있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 1) 林良一 「佛教美術における 裝飾文獻-寶相華①」 佛教藝術 一二一號, 1978, p. 70-71.
- 2) 菊竹淳一, 吉田完志共編, 高麗佛畫, 朝日新聞社, 1981, p. 17-23.
- 3) 鄭干澤, 「筑前善導寺の 地藏菩薩圖」 「美術史」 一二一號, 昭和 六二年, pp. 110-125.
- 4) 朴玉連, 高麗佛教美術仁 現われた 文樣の 研究, 鏡神社藏 楊柳觀音圖의 衣裳文樣お 中心に de arte. 九州藝術學會 4. 1988, p. 35-47.
- 5) 平田觀 「鏡神社藏 楊柳觀音圖像」 「奈良國立文化財研究年報」 昭和 四年, p. 20.
- 6) 李相國集 卷第 十一에는 韓生이 水墨으로 白衣觀音圖(水月觀音圖)를 그리고 幻上人이 贊한기록이 있다. 또 李相國集 卷第 四十一에는 晉陽公催怡가 관음을 묘사하고 적병을 물리치는 것을 기도 했다고 함.
- 7) 佐和降研, 觀世音菩薩의 展開, 佛教藝術, p. 70.
- 8) 林進, 高麗時代의 水月觀音圖について, 日本 美術史 一〇二號, p. 106.
- 9) 朴玉連, 韓國十長生紋樣에 관한 研究, 1986,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 3~5.
- 10) 三品影英, 朝鮮における 佛教と 民族信仰 佛教史學,

第13號, 昭和 29年.

- 11)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問品 第二十五: 補陀洛山은 南印度의 聖賢이 사는 巖谷임.
- 12) 李東洲, 高麗佛畫, 中央日報社, 1984, 韓國의 美: 洛山은 서역 寶陀洛山이므로 少白華로 白衣菩薩의 眞身이 머물기 때문에 붙여짐.
- 13) 朴玉連, 高麗佛教美術仁 現をれた 文様の 研究, 前掲書 p. 43 高麗時代 楊柳觀音圖의 諸作例를 參考하여 보완함.
- 14) 平田寛, 鏡神社藏 楊柳觀音畫像再考, 大和文華, 第七二號, 一九八四年, 二頁.
- 15) 李東洲, 高麗佛畫, 前掲書, p. 247.  
“至治 三年, 發亥 六月日 內斑從事 徐九方畫 棟梁道人 六靜”
- 16) 朴玉連·高麗佛教美術仁 現われた 文様の 研究, 前掲書, 참고도표 參考.
- 17) 金澤弘, 白衣觀音의 諸相, 第五回 國際シンポジウム, 1986年 p. 36, 眞珠庵藏 水月觀音圖와 良全筆 水月觀音圖가 모두 水墨畫의 白衣觀音圖로 14c 日本의 전통적인 관음화는 배경묘사를 樹石과 流水를 배경으로 표현함.
- 18) 大英博物館 소장품, 10c 敦煌의 水月觀音圖는 색채가 단조롭고 문양의 묘사도 거의 없다.
- 19) 九州大學 美學美術史 資料를 활용: 日本 佐賀縣 鏡神社에서 실제로 본 결과를 기록함.
- 20) 日本 九州大學 美學美術史 資料 및 菊竹淳一氏의 高麗佛畫에서 정밀, 확대해 본 것임.
- 21) 九州大學, 文學部 美學美術史 教室의 資料를 參考했음.
- 22) 林永周, 韓國紋樣史, 미진사 1983, p. 226.  
예로 靑磁象嵌唐草文血耳壺(13C, 日本): 菊花文이 平面的으로 도안화되어 花卉이 S字形的 줄기에 연결된 唐草형식임.
- 23) 黃互根, 韓國文樣史, 悅話堂, 美術撰書 12, 1983. p. 132.
- 24) 「拘朴子」內篇 “南陽鄧州驪山中有谷水其左右皆生甘菊食者無不老壽”
- 25) 文光姬, 고려불화속에 나타난 관모 및 髻樣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p25~26  
“本來 보살은 남성이나 唐代와서 美人像과 결부되어 아름다운 여인을 보살같다”고 형용함.
- 26) 李東洲 高麗佛畫, 前掲書 p. 200.
- 27) 李東洲, 上掲書, 圖92 參考.
- 28) 李東洲, 上掲書, 圖89 參考.
- 29) 李東洲, 上掲書, 圖35 參考.
- 30) 九州大學 文學部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사본.
- 31) 九州大學 文學部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사본.
- 32) 李東洲, 高麗佛畫, 前掲書, 圖29 參考.
- 33) 李東洲, 上掲書, 圖30 參考.
- 34) 九州大學 文學部 美學美術史 研究室 資料사본
- 35)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高麗佛畫, 前掲書, 圖40 參考.
- 36) 李東洲, 高麗佛畫, 前掲書, 圖61.
- 37)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高麗佛畫, 前掲書 圖44 參考.
- 38) 李東洲, 高麗佛畫, 前掲書, 圖36 參考.
- 39) 小林一雄, 中國文樣史의 研究, 新樹社, 1959, p. 159.  
官城子古墳의 壁畫에 一人의 神仁이 爬蟲唐草를 타고 이 爬蟲唐草는 雲의 역할을 한다고 함.
- 40)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高麗佛畫, 前掲書, 圖8 參考.
- 41)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上掲書, 圖10 參考.
- 42) 黃互根, 韓國文樣史, 前掲書 p. 143.
- 43) 金明玉, 韓國工藝에 나타난 鳳凰文樣 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6. pp. 3~11.
- 44) 朴玉連, 高麗佛教美術仁 現われた 文様の 研究, 前掲書, p. 38.
- 45)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高麗佛畫, 前掲書, 圖19 參考.
- 46)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上掲書, 圖10 參考.
- 47) 林進, 新出의 高麗水月觀音圖について, 上掲書, 菊花 1송이는 知恩院의 觀音變상도에 나타나고, 菊花 2·3 송이 조합은 阿彌陀三尊圖등에 표현된다. 특히 수월 관음도에는 4송이가 조합된 것은 聖衆來仰寺 소장 수월 관음도, 菊花 5송이가 조합된 것은 大德寺 소장 (II), 養壽寺 소장 수월 관음도가 있고, 菊花 7송이가 조합된 것은 개인 소장 수월 관음도, 菊花 9송이가 조합된 것은 親王院 소장 석가설법도 등에서 표현된다.
- 48) 任防, 述異記 卷上: 龜千年生毛龜壽五千年謂之神龜千年日龜.
- 49) 江上綏, 日本의 文樣의 源流, 日本 經濟新聞社, 1983, p. 4.
- 50) 李東洲, 高麗佛畫, 前掲書, 圖27 參考.
- 51) 林良一, 佛教美術 おける 裝飾文良, 一蓮花①, 佛教藝術, 一九七四年, 二〇頁.
- 52) 雙楹塚(5C末) 十二瓣形 蓮花로 二重으로 표현하고, 眞坡星(5~6C初) 고분의 蓮花文은 둥근 子房을 中心으로 外輪에 蓮瓣을 配列한 형태로 표현됨.
- 53)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高麗佛畫, 圖11 參考.
- 54) 菊竹淳一, 吉田宏志 共著, 上掲書, 圖59 參考.
- 55)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東京 堂山房, 1971, p. 563.
- 56) 曹圭和, 服飾美學, 修學社, 1982, p. 233.
- 57) 白鶴美術館所藏과 根洋美術館所藏(日本).
- 58) 韓國紋樣史(林永周 미진사). p. 141(高麗時代 梵鐘) p. 263(高麗時代중엽, 12C, 靑磁象嵌雲鶴紋梅瓶), p. 273(高麗중엽 12C 靑磁象嵌雲鶴紋梅瓶) 그림 參考함.

## 高麗時代 楊柳觀音圖의 製作例

[참고도표]

序号	所藏	品質과 크기	배일문양	寶冠문양	裳의문양	제작년도
1	佐賀縣 鏡神社	見本者色縱 419.5×橫 254.2	雲文·鳳凰文	菊花唐草文	龜甲文, 蓮花文	至大三年(1310年)銘
2	京都市 大德寺(III)	" 129.6×63.8	"	菊花文	"	
3	德島縣 長樂寺	" 119.0×63.5	"	"	"	
4	奈良縣 立美術館	" 105.3×50.5	"	"	"	
5	岐阜縣 東光寺	" 109.2×53.7	"	菊花文이 없음		觀音像(立像)
6	東京 淺草寺	" 144×62.6	"	"	"	慧虛筆
7	京都市 大德寺(I)	" 227.9×125.8	唐草圓文	文樣이 없음	龜甲文, 蓮花文	
8	京都 泉屋博古館	" 165.5×101.5	"	국화문	"	至治三年 1323年銘
9	個人藏	" 143.8×77.2	"	"	"	
10	奈良縣 談山神社	" 109.5×57.8	"	"	"	
11	神戶市 太山寺	" 109.2×56.7	蓮·菊複合圓文	"	"	
12	京都市 大德寺(II)	" 154.3×84.7	菊花圓文	菊花文	龜甲文, 蓮花文	
13	大津市 聖衆來迎寺	" 145.5×82.7	蓮花·蓮葉圓文	"	圓文	
14	和歌山縣 寶寺院	" 166.4×88.8	菊花圓文	"	龜甲文, 蓮花文	
15	舊 願成寺	" 106.6×48.6	花圓文	菊花文	"	
16	日本 熱海市 M.O.A 美術館	" 99.0×46.2	菊花圓文	" 문양이 없음		
17	大阪府 叡福寺	" 99.9×50.7	菊花圓文	菊花文	龜甲文, 蓮花文 (圓形)	
18	愛知縣 養壽寺	" 101.1×56.0	"	"	"	
19	奈良市 大和文華館	" 100.4×49.6	문양이 없음	"	菊花圓文	李東洲고려불화엔 99.0×49.0으로 됨
20	미국 개인소장	" 97.8×51.4	미확인	미확인	龜甲文, 蓮花文	14C로 추정(스포츠 서울 10, 28기사)
21	鳥取縣 豐乘寺	" 105.2×54.5	배일이 없음	"	圓文	대개의 수월관음도 와 형식이 相異함
22	京都市 藤井齊成會 有隣館	" 105.5×54.3	雲文	"	龜甲文, 蓮花文	
23	奈良縣 長谷寺	" 99.0×52.0	배일이 없음	"	圓文	
24	日本 根津美術館	" 101.5×50.8	"	"	잘보이지 않음	일본에선 고려불화 로 추정 如慈輪觀音 입